



스위스 융프라우호 설산. 지구 온난화로 조금씩 녹아 내리고 있다. 기상 이변에 예외는 없다.

5. 융프라우호 (스위스) = 밀라노를 거쳐 스위스 인터라켄. 이른 아침을 먹고 산악열차가 출발하는 오스트역에 왔다. 만년설이 뒤덮인 해발 3,454m 융프라우호를 오르기 위해서다. 7월이지만 영하 1~2도. 냉기가 느껴진다. 멀리 뒤로 보이는 높은 산의 만년설이 마음을 설레게 한다.

산악열차는 체인을 감아서 천천히 올라간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융프라우호의 비경이 거대한 파노라마를 펼친다. 열차를 세 번 바꿔 타고 정상에 다다랐다. 열차 내부는 깨끗하고 정말 쾌적. 두꺼운 옷을 준비했지만 정상에서 눈발이 돌아다니느라 추웠다. 약간의 고산병 증세도 왔다. 지구온난화로 이곳의 만년설도 매년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다.

6. 피렌체 (이탈리아) = 꽃이란 뜻의 이탈리아 중부도시.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중심 도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브루넬레스키, 단테, 갈릴레오 등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들을 낳았다. 도시 전체가 잘 만들어진 르네상스 박물관이다. 150년에 걸쳐 완공한 피렌체 두오모 성당의 위용은 상상 불하다. 완공한 지 570년이 지난 지금도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건축물이다.

시뇨리아 광장에서는 시청사인 베키오 궁전과 르네상스시대 유명 예술인의 조각상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미켈란젤로 언덕에서 피렌체 시내를 감상하고 '단테의 집'을 찾았다. 원래 단테가 살던 집은 아니고 단테가 살던 위치에 있는 건물을 사들여 지은 단테 기념관이다. 단테는 35세에 정치적 이유로 피렌체에서 추방돼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한 비극의 시인이었다.

7. 로마 (이탈리아) = 유럽여행의 마지막 행선지인 로마에서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바티칸 박물관을 관람했다. 역대 교황의 궁전이던 바티칸 궁을 박물관으로 개조한 것이다.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당대 최고의 화가와 조각가들을 초빙해 바티칸 궁전을 완성했다. 각종 장식과 소장 유물은 몇 날 며칠을 봐도 모자랄 만큼 방대하다.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천지창조'가 그려진 시스티나 예배당과 카톨릭교의 본산이자 걸작 '피에타'가 좌정한 성베드로 성당(바티칸 대성당), 그리고 벽화 '최후의 만찬'이 그려진 북부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라 그라치에 성당 등은 이탈리아가 왜 관광 강국인지를 잘 보여준다. 예술작품이 아우라를 휘감고 역사성이 서사를 떠받친다. 여기에 건축미와 양식미, 압도하는 규모가 어우러진 건축물들은 전세계 관광객을 끊임없이 불러 모은다. 고고한 자태로 시원히 내뿜는 트레비 분수 앞에서 문득 생각에 잠긴다.

민주정치와 상업, 법률의 중심지인 포로 로마노를 빠트릴 수 없다. 5세기 경 로마 분열을 시작으로 대부분 건물들은 무너지고 부서졌지만 번성했던 옛 로마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로마의 상징물은 뭐니 해도 콜로세움. 전무후무한 거대 석조 상설 원형극장은 500년 동안 잔인한 맹수 사냥, 검투사 시합 경기장이었다. 검투사에 희생된 동물과 노예들의 삶을 잠시 그려봤다. 굳건했던 콜로세움도 여러 차례 지진과 세월의 무게로 서서히 파괴돼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원래 모습의 3분의 1도 안 된다. 인간도 문명도 시간 앞에 었던 가련한 신민이다.

11일 여정의 마지막. 돌아가는 길. 삶 또한 여정이다. 귀국하면 당분간 스파게티와 빵을 먹지 않을 것 같다. 갑자기 식욕이 돋는다. 잔걸음으로 로마 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김강수 시민기자



전무후무한 거대 석조 상설 경기장이었던 로마 콜로세움.



화려했던 로마의 영화는 무너진 돌기둥과 잡초로 남아 있다. 포로 로마노.

모임과 사람들

계명문화대학 가족회사CEO 조찬문화포럼

자본은 '문화적 감성' 기업문화·삶을 바꾼다



밥만 먹고 담소하는 조찬 모임이 아니다. 지역의 내로라하는 인사를 초청해 문화를 즐기고 삶을 나누며 현장을 찾는 조찬문화포럼이 열리고 있다. 계명문화대학교(총장 박승호)는 가족회사 CEO들의 문화적 감성자본을 충전하는 'KMCU 가족회사 CEO 조찬문화포럼' 2학기를 지난 9월 개강했다.

제4기 KMCU 가족회사 CEO 조찬문화포럼의 2학기 세부 프로그램은 ▲일상에서 만난 예술 ▲연극 맛있게 먹기: 공연으로 행복해지는 첫걸음 ▲파괴하라 그리고 창조하라: 역발상 문화콘텐츠의 힘 ▲자수의 인문학 ▲스토리텔링, 왜 중요한가? ▲죄절과 극복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 ▲대구 음악사 이야기 등이다. 12월 5일까지 매월 격주 목요일 아침 7시부터 계명문화대학교 보건관 등에서 진행한다.

가족회사 CEO 문화적 감성 충전

조찬문화포럼은 계명문화대가 가족회사 CEO들의 문화적 감성을 충전함으로써 기업 문화를 바꾸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역출신 문화예술계, 언론계, 인문학 분야 유명 인사와 함께 전국적으로 명성과 인지도가 높은 인사들을 대거 초빙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 시작해 올해 4회째로 성공적인 문화포럼으로 입지를 굳혔다.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무렵에는 계명문화대 가족회사 CEO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지금은 지역 내 자치단체, 공기업, 성서산업공단 입주업체, 소기업 대표들과 중견 관리자에게까지 확대되어 조찬문화포럼 참석인원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제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 목요일 아침 7시(10월 10일)에는 캐릭터 할아버지라는 애칭을 가진 김준한 경북 안동 군자마을 '상상연구공간 양정' 대표가 '파괴하라! 세상은 늘 새로운 것으로 가득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조찬문화포럼은 강연뿐만 아니라 '문화를 즐기는 날'을 지정하여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도 지속해 왔다. 지난여름에는 야구경기를 관람했고, 11월에는 최주환, 안희철 감독이 연출한 연극 '만나지 못한 친구'를 관람하고 가을맞이 등산도 할 예정이다. 일부 CEO 참가자는 자녀 또는 직원들과 함께 참석하기도 한다.

기업 애로 해결-학생 실습·취업 '상생'

가족회사 CEO의 문화적 감성자본이 충전되고 질이 높아지면 감성리더십 발휘를 통해 기업문화가 변화하고 회사 구성원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 가족회사들은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문제점을 해결하기도 한다. 대학은 인프라를 통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주고 기업은 학생들의 현장실습이나 취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박승호 총장은 "주변에서 조찬문화포럼이 가족회사 CEO들의 감성리더십 발휘와 기업문화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를 들 때마다 지역사회·지역경제의 발전에 대학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된다"면서 "앞으로도 가족회사 CEO조찬문화포럼이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선혜 시민기자